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도시 최종 선정

### 전주시, 복지부 공모서... 장애어르신 돌봄 시간 확대 등 17개 선도사업·복지부 연계사업 포함 38개 사업 추진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동네복지 정책을 펼친 전주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핵심 사회정책 의제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도시로 지정했다.

전주시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모사업에서 노인분야 선도사업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홀로거주 어르신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시설이 아닌 자택에 거주하게 하면서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이번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국비 11억원 등 약 36억원을 투입해 완산구에 거주하는 어르신 4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어르신 돌봄 시간 확대사업' 등 17개 선도사업과 복지부 연계사업, 전주시 자체사업을 포함해 총 38개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출범한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복지 활성화를 통해 점진적 통합 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

이다. 시는 향후 보건복지부 컨설팅과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덕진구 권역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번 지역사회 통합 돌봄 공모사업에는 100여 곳이 넘는 전국 지자체의 뜨거운 관심 속에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고민했으나 사업량이 방대하고 준비과정이 까다로운 관계로 최종 접수결과 노인 분야 22개, 장애인 분야 5개, 정신질환 분야 2개 등 29개 기초자치단체만 선정됐다.

'노인 분야'의 경우 가장 많은 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전주시는 최종 선정된 5개 지자체 중에서도 민·관 협력과 기본계획서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 무난히 선도사업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실제 지난 2일 최종 심사 발표자로 나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 중심의 도전하는 도시, 전주'를 주제로 △선미촌 문화재생산업 △바람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금용복지상담소 운영 △전북발달장애인 맞춤형연령 통합센터 △아호아이숲 △동네복지 등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꿈꾸는 전주시 정책들을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김 시장은 △다올마당 △시민원탁회의 △온두레공동체 △복지재단 전주사람 △자원봉사자 △통합돌봄 민관협의체 운영 등 민관협력과 시민소통의 탄탄한 기반을 강점으로 제시하고, △통합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대폭 확충 △추진단 설치 △2020년 덕진구 확대 추진 △사업추진 담당자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의지를 피력해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50여 일간 56차례의 릴레이간담회와 37회에 걸친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강 4회 등 돌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서를 작성했다. 또, 지역사회 96개 돌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전주만의 돌봄 모형 구축을 위해 힘써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 시민에 대한 개별적 복지 서비스에서 한 시민을 위해 도시 전체가 연대하는 '통합돌봄'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통합돌봄을 통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남학원과 수능대비 협약

전주시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수능대비반 운영으로 대학진학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는 4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202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수능대비반 '애들이 대학 가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꿈드림 수능대비반은 전주 강남학원과 협력해 약 7개월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능과목(수학)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능대비반은 전북도 꿈드림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날 수능대비반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그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지원을 도모한 전주강남학원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능대비반 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대비반 '스마트교실' △대학입시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진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검정고시 대비반과 수능대비반 등을 통해 올해 21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기도 했다.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또는 전화(063-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 이달 '쌍끌이 관광홍보' 전개

### 전주시, '내나라여행 박람회'·'힐링페어 슬로시티' 참가

전주시가 국내여행객과 슬로여행객 유치를 위한 4월 4일 2박3일박람회 참가해 쌍끌이 관광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각각 서울 코엑스와 양재A센터에서 열리는 '2019 내나라여행 박람회'와 '2019 힐링페어 슬로시티'에 참석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홍보 마케팅을 전개한다.

시는 2개 박람회에서 전주관광 홍보관을 운영하고 전주관광지원과 슬로시티 여행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국내 450여개 기관 및 500여개 홍보부스가 참여할 가운데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2019 내나라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 야간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포토카드 이벤트 등을 펼치는 등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한다.

특히 시는 이번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테마여행 10선과 야간관광활성화를 위해 조명과 소품을 활용한 야

경 콘셉트의 놀이터를 운영하고, 군산시·고창군·부안군 등 테마여행 10선 7권역 3개 시·군과 함께 테마여행 10선 연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국제슬로시티로서 슬로여행객 유치를 위해 서울 양재 A센터에서 열리는 2019 힐링페어 '슬로시티 특별관'에 참여한다. 슬로시티 특별관은 힐링페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슬로시티만의 독자적인 전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여행하기 좋은 봄철을 맞아 전주를 방문하려는 관광객을 위해 전주한지 문화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등 축제 정보를 제공하고 슬로여행상품 홍보를 통해 국내외 개별 단체 여행객을 유치할 계획"이라며, "4월 1일부터 열리는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빅2 여행 박람회 참가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한 차원 높이는 쌍끌이 관광홍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시민이 만들고 가꾸는 쌈지정원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상임대표 정명운)와 전북주책관리공단 전주호자후면시04-1관리소(소장 오종욱)는 지난 3일 아파트 입주인 50여 명과 인근 유치원생, 관리사무소 직원, 천만그루정원도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아파트 내에 쌈지정원을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 전북형 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 전북문화관광재단, 24일까지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 이하 재단)이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전북형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주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과 공동 주관하는 '2019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총 24명 내외의 문화예술 관련 대학 전공자, 문화 활동 경력자(경력 3년 이내), 정부 및 민간 기관의 문화인력양성 교육수료자, 지역문화에 관심 있고 지역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문화인력 도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총 교육 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세부 교육과정은 오는 5월 16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의 통합 입문과정을 시작으로 2주간의 집중이론교육 및 집중워크숍, 4개월간의 지역특화교육 및 전국통합리더과정으로 이뤄진다.

도내 3개 기초재단(전주·익산·완주)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전북권 지역문화인력양성사업은 재단마다 특화된 주제의 문화인력 양성이 목표다.

전주문화재단은 생활문화매개자 양성·배치,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도시재생과 메이커커뮤니티, 그리고 완주

문화재단은 지역문화콘텐츠 기획자 양성의 지역 특화주제를 설정해 주제별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선발된 교육생은 교육과정 동안 특화주제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들의 1:1 컨설팅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하게 된다. 모든 과정은 교육생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는 실전형으로 진행된다.

평가를 통해 선발된 심화과정 교육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제교류과정의 참가 기회가 주어지며 최종 우수기회안으로 선정되면 300만원의 기획실행 지원금이 주어진다.

'지역문화인력양성사업'은 현장에서 지역문화를 이해하는 문화활동가 발굴 및 문화콘텐츠의 기획·개발·실행·매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재단은 2017~18년 전북권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지난해까지 총 5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2019~20년, 2년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새로운 전북형 문화리더를 양성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주제로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정책기획팀(063-230-74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호철 기자

## 고교 유도선수 성폭행 전직 코치, 법정서 '뻔뻔'

### 첫 공판서 "우리 연인사이"로 성폭행 혐의 부인

고교 유도선수이던 제자 신유용(24)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치 A모(35)씨가 첫 재판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강제적이지는 않았지만 입맞춤 등 추행을 인정한다. 하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처음을 제외하곤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들의 관계가 가까워져 연인 같은 사이가 됐으며, 성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부양 재능이 세 명이나 되며, 모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

찰과 신씨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하며 보석 기각을 요구했다.

이날 공판을 지켜본 신씨는 "자신은 'A씨가 반성하고 있지 않음'에 대한 생각에 무섭지만 이곳에 왔다. 당당한 모습에 놀라고 눈물까지 났다"며 "A씨가 보석을 신청하는 모습을 보며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그가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마음을 굳건히 하고 더욱 힘을 내겠다. 앞으로 재판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씨 변호인은 "강제추행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다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야하는 등 2차 피해가 발

생하게 됐다"고 분노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신씨와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도 참석할 전망이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씨를 강제로 입맞춤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3월 4일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객관적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속영장에는 2건의 혐의에 대해서만 적시됐다.

당시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에서 코치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강석훈 기자

##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 JW중외상 수상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이사장 이동휘)은 지역사회 및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헌신적인 사회봉사활동으로 나눔과 인술(仁術)을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JW중외 봉사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드래곤시티 한라룸에서 대한병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행사와 함께 진행된, 제 27회 JW중외 봉사상 시상식에서 국제의료협력단(이사장 이동휘)이 JW중외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국제의료협력단은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된 계층을 위해 매년 해외와 국내 봉사 의료봉사 및 국내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들에게 무료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해외에서 활발하게 의료봉사를 해 봉사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동휘 이사장은 대신해 참석한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 김병선 교육훈련원장(내과 과장)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국제의료협력단 이동휘 이사장은 "참 인술 실현을 통해 병원인으로서 존경과 지역사회로부터 사랑이 두터



운 회원에게 주는 JW중외봉사상을 과거 수 십년간 국내외에서 인술을 펼친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이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이 상은 우리나라 의료인에게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 앞으로 더 큰 이웃사랑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눔과 인술을 실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태 기자

## 정읍 A 초교서 '식중독 의심'

전북 정읍의 A 초등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경 정읍시내 A 초등학교 학생 11명이 구토와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신고를 받은 보건당국은 의심환자 가검물 등을 채취해 노로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식중독 의심환자 5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6명은 자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급식을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개인 도시락과 식수를 지급토록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같은 급식실을 이용한 중고생들은 피해가 없어 급식이 식중독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약국서 난동 부린 40대 검거

거스름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모(4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35분경 부안군 부안을 한 약국에서 40분 가량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거스름돈 5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약국에서는 거스름돈을 제대로 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평소 다른 상인에게도 여러 차례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다"며 "재범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